

地球環境保護를 為한 溫暖化防止對策技術

-CO₂ 問題에 對한 對策技術의 分類와 評價 -

A Countermeasure Technology of the Preventive Earth Weather
From Warm for the Global Environment Protect

李 春 泽*

Lee, Chun Taek

우루파이 라운드(UR)의 推移에 온 神經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훨씬 큰 衝擊은 우리經濟에 몰고 올 國際的인 環境規制의 움직임이 그 모습을 分明하게 드러내고 있다.

몬트리얼 議定書, 巴젤協約, 氣候變化防止協約, 動植物의 多樣性保護協約 등 現在進行中인 4個의 環境關連 國際協約은 올해 안에 모두가 發效 또는 締結될 展望이다. 동시에 오는 6월 브라질에서 開催될 UN 環境開發會議(UNCED)에서는 世界環境保全을 위한 「리오선언」이 採擇될 豫定이다. 이밖에도 UR이 妥結되면 그 이후에는 國際環境問題를 論議할 「그린라운드」를 열자는 提案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하나뿐인 地球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世界的 共感帶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를 主導하는 美國·EC 등 先進國들은 汚染物質을 많이 排出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貿易規制를 취할 態度도 보이고 있다. 結局 다가올 21世紀는 環境保護의 原則이 世界經濟秩序의 基本을 이를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지금까지 環境問題를 소홀히 대해 온 우리들에게 非常이 걸린 셈이다.

世界的인 環境保全움직임은 우리나라의 經濟成長, 產業構造 및 國際貿易에 넓고 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分明하다.

〈目 次〉

- | | |
|-----------------------------|-----------------------------------|
| 1. CO ₂ 對策技術의 分類 | 4. 社會變動을 前提로 하는 對策 |
| 2. 現狀維持型 對策技術 | 5. 氣候變化 對應型 對策 |
| 3. 太陽 等의 1次 Energy를 想定하는 對策 | 6. CO ₂ 問題의 對策과 今後의 課題 |

1. CO₂ 對策技術의 分類

地球規模 環境問題의 하나로서 化石燃料 使用에 따른 CO₂의 增大가 問題로 되고, 그 對策

에 關해서도 여러가지 提案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 對策方法의 分류 및 정성적인 評價를 試圖한다.

地球規模의 環境問題는 人間活動으로 因한 環境파괴의 問題인 것이다. CO₂에 關해서는

*礦業資源(地下資源開發技術士) | 韓國資源研究所 技術情報部 技術情報室 責任研究員

化石燃料의 消費에 의한 大氣中의 CO₂濃度 增加가 原因인 것이고, 地球를 溫暖化하는 일로 추측 되어지고 있다. 化石燃料의 消費와 大氣 中의 CO₂濃度增加의 상관은 實測值를 근거로 해서 認知되어지는 것이지만 CO₂의 濃度增加 와 地球溫暖化의 상관에 對해서는 Model에 의한 추측결과를 기초로 議論되고 있으며 研究者에 豫測되는 溫暖化의 程度도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CO₂에 관한 對策의 方法도 CO₂濃度를 增加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이 될 뿐이다. 그러나 現在 提案되어지고 있는 對策에는 溫暖에 對應하는 對策도 包含되고 있다. 이 兩者는 明確하게 區別할 必要가 있다. 더구나 CO₂ 課題은 長期的으로는 地球環境維持의 問題도 있지만 短期的으로는 現在 社會 產業의 構造를維持하는 일이 곤란하게 될 可能性이 示唆되는 것에 따라서 社會的 동요로 있을 생각가 된다. 따라서 大氣中의 CO₂濃度를 增加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觀點에서 提案되고 있는 對策을 現在의 社會·產業의 構造를維持하는 觀點으로 提案되어진 것인가 아닌가로 나누는 일이 될 수 있다. CO₂對策 最初의 整理로써 이들 두가지의 點에서 分類 整理한 結果를 表1에 나타냈다. 表1에는 各項目에 관해서 簡單한 評價를 記述했다.

表1. CO₂ 問題에 對한 工學的 對策技術

1. 現狀維持型對策技術

- 1-1. Energy 利用의 高效率化(省 Energy)
 - 現時點에서 可能한 것
 - 研究開發의 Potential이 있음
- 1-2. 石炭·石油의 天然가스로의 移行
 - 天然가스의 資源으로써 制約이 따름
 - 對替技術確立까지 問題의 Advance로써 意味를 가짐
- 1-3. 自然 Energy의 利用
 - 開發의 Potential이 있음
 - 太陽·地熱 등은 效率의 向上이 必要, 水

力은 場所의 問題

- 1-4. 核 Energy의 利用
 - 安全性에 對한 社會的 認知가 必要
 - 廢棄物處理가 課題
- 1-5. 化石燃料로부터 脫炭素에 의한 水素의 製造
 - 技術的인 Potential이 있음.
 - Process 全體로서의 效率이 問題
- 1-6. CO₂의 回收·處理
 - 技術的으로는 問題가 없음
 - 投棄場所로서의 海洋可能性은 不明
- 1-7. 植林·沙漠의 綠化
 - 植林은 現狀에서 伐採에 따른 頁의 效果를 抑制
 - 沙漠의 綠化는 Energy 投入量으로 對應이 疑問
- 1-8. 海洋을 利用한 CO₂의 固定
 - 效果에 關한 確信이 없음.
 - Energy 投入量을 固定量으로 對應하는 것인가 疑問
- 1-9. Biomass의 利用
 - CO₂의 循環再活用 System으로 期待됨
 - 成長이 빠른 植物을 發見할 必要가 있음
- 2. 太陽의 1次 Energy를 想定하는 對策
 - 2-1. 水素의 利用 System
 - 水素에 의한 直接還元製鐵等 產業의 CO₂抑制에 效果가 있음.
 - 2-2. CO₂의 還元固定化·再利用
 - CO₂의 循環利用 System으로서 期待됨.
 - 開發의 Potential이 있음.
 - 2-3. 石炭·石油로부터 低炭素燃料의 製造
 - 炭素資源으로서 石炭·石油의 溫存이 可能
 - CO₂發生源을 集中化하여 低炭素燃料의 供給이 可能
- 3. 社會變動을 前提로 하는 對策
 - 3-1. 省 Energy 都市의 建設
 - 都市의 動的變動에 對應될 것인가?
 - 3-2. 技術·產業의 移轉
 - 國家의 Security의 問題가 있음.

4. 氣候變化·對應型對策

- 4-1. 高堤防建設에 의한 都市에 위 쌓기
 - 長期的 計劃으로써 지나친 無策
- 4-2. 農業植物 등의 品種改良(含遺傳子工學)
 - 安全性에 關한 社會의 認知가 必要
- 4-3. 農業의 世界的 分擔
 - 國家的 Security의 問題가 있음.

表1에서 「省 Energy 建設 및 產業移轉」을 社會·產業構造의 變動을 前提로 한 對策으로서 分類했다.

CO₂ 問題는 基本的으로는 Energy 問題인 것이고 後述하고자 하는 社會·產業의 維持를前提로 한 對策의 大部分은 化石燃料의 消費 삐감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化石燃料의 消費 삐감을 위하여, 例를 들면 化石燃料에 對한 課徵金制度가 導入되어진 경우에는 豐富한 水力發電을 갖는 地域으로 產業이 移轉할 可能性도 否定할 수는 없다.

더우기 將來 太陽 Energy의 大規模的인 利用이 現實化되는 경우에는 태양 Energy가 豐富하게 存在하는 沙漠 주변에서 產業이 活潑化할 可能性도 있다.

이들은 주로 經濟的 要因에 의한 變動인 것 이지만 現在 提案되고 있는 對策中 특히 技術開發을 中心으로 한 對策에는 結果로써 產業의 世界的인 移動을 가져올 可能성이 많고, 社會·產業構造의 變動에 관해서도 考慮하는 일도 금후는 必要하다고 料된다.

이외에 CO₂ 問題에 대한 對策은 原則으로 現在 社會·產業構造의 維持를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資源 Energy의 利用」과 같이 1次 Energy의 開發을 中心으로 한 對策과 「CO₂의 還元固定化」와 같이 化石燃料에 대신하는 1次 Energy를 상정하는 대책이 혼재하고 있다.

表1에는 이들을 分類해서 나타낸 것이다. 1次 Energy를 상정하는 對策은 電氣 Energy 및 水素 Energy를 利用하는 일을前提로 하고

있다. 이들은 CO₂ 對策으로서는 長期的인 開發 技術로서 位置한다는 事情은 現狀에서 天然가스에 比較한 單位 發熱量當 CO₂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CO₂ 問題 가운데에서는 경원되는 方向으로 있지만 1次 Energy가 開發되는 일을 상정하면, 水素를 利用한 低炭素燃料의 製造가 可能하고 「CO₂ 還元固定化」와 마찬가지로 位置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들을 除外한 現狀維持를 目的으로 한 對策은 化石燃料의 使用量을 爽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과 化石燃料로부터 排出되는 CO₂를 處理하는 일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表1의 (1-1)로부터 (1-5)에 나타낸 「Energy 利用의 高效率化」, 「炭素·石油의 天然 가스에의 移行」, 「自然 Energy의 利用」, 「核 Energy의 利用」, 「化石燃料로부터의 脫炭素에의 수소의 製造」가 化石燃料 使用量 爽감을 目的으로 한 對策인 것이다.

表1의 (1-6)으로부터 (1-9)에 나타낸 (CO₂의 回收·處理), 「植林·沙漠의 綠化」, 「海洋을 利用한 CO₂의 固定」, 「Biomass의 利用」은 주로 CO₂의 處理를 目的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는 火力發電所 등의 大量發電所에서 排出되는 CO₂의 處理에 有效한 對策이 없는 것이다. 現在 提案되어지고 있는 唯一한 對策은 CO₂를 回收하고, 海洋에 投機(廢棄)하는 것이다. 그러나 海洋에 廢棄된 CO₂가 海洋의 生物에게 주는 영향 및 大氣中에 떨어질 可能성을 念慮하고 있다. 따라서 現狀으로서는 「植林·沙漠의 綠化」가 有效的 對策으로 注目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陸上의 植物園은 現在로써 CO₂의 發生源으로서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植林·沙漠의 綠化」는 大氣中의 CO₂ 問題의 對策으로서 化學燃料의 使用을 爽감시키는 일은 重要的 課題인 것이고, 原則으로써 世界的으로 異論은 없는 것이라고 料된다.

問題는 그 程度와 時期인 것이라고 본다. 以

下上述한 對策에 관해서 技術的인 問題를 中心으로 現狀과 將來展望에 대해서 記述하고자 한다.

2. 現狀維持型 對策技術

2-1. Energy 利用의 高效率化(省 Energy)

大氣中 CO₂ 濃度의 추정 Model로서 美國議會報告에도 使用되어진 레이몬드 타이티 Model 計算에 의하면 Energy 利用效率의 경우에는 2050 年 CO₂ 排出量이 炭素換算으로써 約 160 億噸에 달하지만 Energy 利用效率을 두 배 效率로 하면 約 60 億噸으로 減少할 것이라고 報告되어지고 있다.

이경우의 Energy 利用效率은 日本에서의 Energy 利用效率보다는 약간 나쁜 狀態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效率을 세계에서 일률적으로 달성하는 일이 곤란하다고 사료되지만 Energy 利用效率 向上(省 Energy)의 重要度를 나타내고 있다.

a. 電力部門에서의 高效率化

수증기를 쓰는 통상의 火力發電所 效率은, 使用蒸氣溫度壓力으로써 決定되어진다. 이들은 使用되는 材料의 限界溫度에 依存하고 있다.

現在 開發의 中心은 가스터빈과의 병용에 의 한 콤바인드 사이클로서의 效率向上인 것이다. 이경우에는 가스터빈의 效率化가 問題되고 있다. 石炭火力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콤바인드 사이클의 활용으로 해서 石炭gas화 複合發電이 計劃되고, 新 Energy · 產業技術綜合開發機構(NEDO)에 의해 200T\D의 Pilot Plant의 建設이 進行되고 있다. 또 石炭燃燒의 콤바인드 사이클로서는 加壓流 床燃燒도 着案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石炭直接燃燒와 가스터빈과의 複合 사이클로서 이고, 歐美에서는 70MW 급 4臺, 330MW 급 1臺의 運轉이 1995年까지로 計劃되고 있다.

火力發電에서의 配列利用을 前提로한 Co-

generation은 理想狀態로써 約 80%의 效率을期待되는 것이 되고, Energy 利用의 高效率化技術로해서 期待되어 近年 急速하게 普及되고 있다. 그러나 供給되어지는 Energy의 热과 미치는 電氣의 比率(熱電比)이 一定하게 安定되는 것이 必要하기 때문에 現在利用은 小規模施設에 限하고 있다.

Cogeneration이 普及되면 그것이 故障된 경 우에는 買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電力會社가 過剩의豫備發電設備를 두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問題도 있고, 慎重하게 對應하는 일이 必要하다. 燃料電池는 化學反應에 의한 燃料의 電氣에의 直接轉換으로 있으며 燃酸型, 熔融炭酸鹽型, 固體電解質型 등이 開發되어지고 있다.

作動溫度는 各各 200℃程度, 400~800℃, 800~1,000℃이다. 燃料電池의 燃料에는 天然ガス의 改質가스, 石炭가스화 등의 生成가스가 想定되고 있다. 따라서 高溫으로 作動하는 것 만큼 發電 System의 複合化에 의한 效率의 向上이 期待된다.

石炭가스化, 熔融炭酸鹽型燃料電池, 가스터빈을 짜맞춤으로써 50% 程度의 綜合效率이 想定되고 있으며, NEDO를 中心으로 Moonlight 計劃의 일환으로서 100KW 급의 開發이 행해지고 있다.

固體電解質型燃料電池에 관해서는 基礎研究가 進行되고 있는 段階이다.

MHD 發電(Magnetohydrodynamic Electrical Power Generation)은 導電性의 流體를 高速으로써 強磁界中을 횡으로 끊을 때에 誘導되는 起電力과 電流에 의해 發電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高溫에서 作動하기 때문에 通常의 發電 System 上流에 놓게되는 것으로 效率의 向上을 채는 Toping Cycle로서의 活用이 期待되고 있다.

最近 話題로 되는 것은 많은 超電導技術을 利用하는 일로써 損失의 低減高電流密度化를 期待할 수 있으므로 發電機에 應用이 期待되고 있다. 더우기 將來技術로 核融合爐用의 高磁界

를 發生하는 마그넷로의 使用이 企劃되고 있다. 現在는 招電導材料의 開發이 행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b. 產業·民間部門에서의 高效率化

前項에서는 電力部門 Energy 使用의 高效率化에 관해서 調查結果를 記述했지만 電力を 消費하는 側의 省 Energy 推進은 世界各界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表2에서 世界 主要國의 電氣利用分野에서 期待되는 省 Energy 率推定結果를 나타냈다. 省 Energy가 이미 推進 되고 있는 日本과 西獨에서는 그다지 期待되지 않지만 美國, 中國,

蘇聯에서는 現在 60% 程度의 省 Energy가 可能하다고 推定하고 있다.

기타 產業部門에서는 Energy 利用의 高效率化(省 Energy) 技術로서 現在 開發되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스파링구엔진, 스퍼-히트, 펌프 등이 있다. 이들중에서 酸素富化燃燒技術은 通常의 空氣에 의해 높은 酸素濃度로써燃燒시키는 技術로써 爐溫度의 上昇에 의한 傳熱促進效果 및 排出gas量이 減少하는 것에 따른 排出gas 热損失量의 減少가 期待되고, 通常의 보일러에 應用만이 아니고, MHD 發展用의 燃燒器로서도 開發이 進行되어지고 있다. 또 排

表 2. 各國의 電氣利用分野와 可能한 省 Energy

國	電氣利用分野	電氣利用의 方法 (可能한 省) (Energy率의豫想)	可能한 省 Energy率의豫想
美 國	住宅	모타(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조명	70%
	상공업	모타(전동기계, 에어콘), 조명	70% 60% 이상
	공공단체	모타, 조명	50% (H.S. Geller)
	철도	모타, 조명	30%
	기타	조명	70%
소 련	철공업	모타(전동기계), 조명	70%
	운수	모타, 조명	30% 60% 이상
	공공·가정·건설	모타, 히터, 조명	50% (미국과 동정도)
	철도	모타, 조명	5%
日 本 (9전력)	전등	모타(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조명	5%
	철공업	모타(전동기계, 에어콘), 조명	10%
	철도	모타, 조명	5% 8% 정도
	업무용	모타(에어콘), 조명, 히터	10%
	小口電力	모타(전동기계, 에어콘), 조명	10%
	기타	5.9%	5%
中 國	철공업	모타(전동기계), 조명	70%
	운수	모타	30%
	농업	모타(전동기계), 히터, 조명	70% 60% 이상
	가정	조명, 모타(냉장고, 세탁기)	70% (미국과 동정도)
	자치체·상업	조명	-
西 獨	손실	15.6%	
	산업	49.6%	
	운수	3.0%	
	가정	25.2%	
	농업	2.0% 日本과 同	8% 정도
	상공업	11.3%	(日本과 동정도)
	공공	7.8%	

氣中의 CO₂ 濃度가 높기 때문에 CO₂의回收가容易하다고指摘되고 있다.

民間部門에서의省Energy로서는省Energy省Energy住宅, 빌딩이建設되기 시작했다.前者는從來의 Energy消費의 65%를,后者는 78%를節約시켰다고報告되어지고 있다.

c. 運輸部門에서의 變動變化

가까운將來에實現可能한省Energy로서가소린自動體의燃費向上에 의한運輸部門의省Energy가期待되어지고 있다.表3에現在의量產體와試作體의燃費를나타냈다.

量產體에비해試作體의燃費는約30%以上向上하고 있다.試作體에는디젤엔진이많다.現時點에서가장efficiency이좋은엔진은디젤엔진이지만窒素酸化物과粉塵의排出量이 많아今后는가소린體의燃費向上이要望되고 있다.

2-2. 石炭·石油의天然gas에의移行

現在世界에서使用되고 있는化石燃料는石油및天然gas이다.表4에그炭素에대한水素의比,發熱量을나타냈다.

化石燃料(特히石炭)은產地에의한相違가크고,表4의값은各各의代表的인값인것이다.또表4에는똑같이Energy를얻을때에發生하는CO₂量도나타냈다.

자주말한바와같이똑같이Energy를얻을때發生하는CO₂量은石炭에서는石油의約4배,天然gas는石油의約0.7배이다.一般的으로炭素가적은『低炭素燃料』(逆으로『高水素燃料』라고불리우는것도있다)는發熱量에대한CO₂發生量은적다.따라서CO₂抑制의面에서는石炭보다도石油의使用이要望되고,石油보다도天然gas의使用이要望된다.그러나이것에는두가지의問題가있다.

그하나는天然gas存在量의問題인것이다.表5에世界化石燃料의存在量을나태났다.天然gas는石炭·石油에비해存在量이

적고,石油와마찬가지로存在하는場所가編在되어있다.

今后天然gas의使用을극단으로增大하는것이될수있다고생각하기어렵다.天然gas의또하나의問題는天然gas는石炭·石油보다는적지만역시CO₂를發生한다고하는일인것이다.따라서天然gas로의移行은CO₂의處理技術이確立될때까지의시간적인여유를주는가장간편한方法으로位置해갈것이다.

表3. 4인승自動車의燃費

區分	차종류	엔진·타입	燃基[km/l]
量產車	푸조 205	가소린	18
	포드, 에스코트	디젤	22
	혼다, 시티	가소린	22
	스즈키, 스프린트	가소린	24
試作車	볼보 LCP 2,000	디젤	30
	푸조 ECO	가소린	31
	폴크스바겐 E80	디젤	31
	폴크스바겐 E80	디젤	35
	도요타 AXV	디젤	41

註: (1)都市 및高速道路의複合燃費 (2)市街地走行值

資料: Deborah Bleviss : The New Oil Crisis and Fuel Economy Technologies: Preparing the Light Transporiation Industry for the 1990's (New York: Quorum Press, in Press).

表4. 各種燃料의比較

區分	石炭(一般炭)	原油	天然gas	水素
發熱量(kcal/kg)	7,000	10,890	12,800	23,850
H/C比(atam/atom)	0.93	1.77	3.93	00
CO ₂ 發生量(g/kcal)	0.41	0.29	0.21	0.0
CO ₂ 發生量의比(對原油)	1.43	1.00	0.7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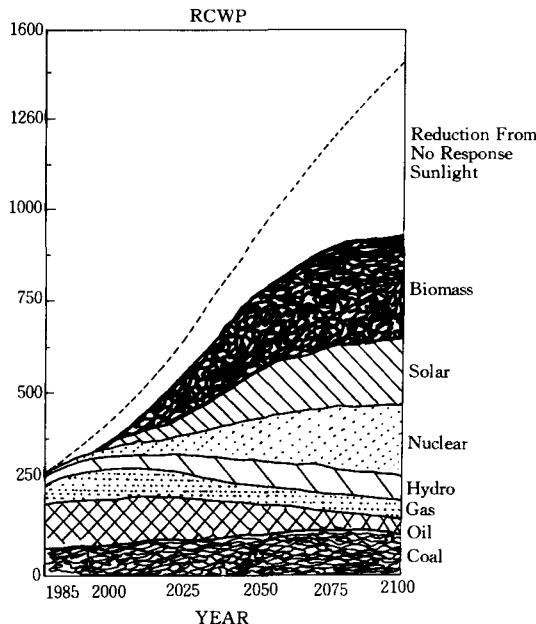


그림 1. 에드몬드·라이리 모델 CO₂ 制約下에서의 1次 에너지 공급분포 (EPA 보고).

2.3 自然 energy의 利用

大氣中의 CO₂ 濃度의 推定모델로서 美國議會報告에도 使用되어진 레이몬드-라이리 모델내에서의 計算에 의하면 2100年에서의 CO₂ 排出量은 現在量 보다도 더 抑制하기 위해서는 化石燃料 生產課徵金, 使用과징금 등의 政策을 行하는 일이 必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경우의 1차 Energy 供給量分布를 圖 1에 나타냈다. 化石燃料의 使用이 抑制되는 結果, 1次 Energy 使用量의 增大에는 바이매스, 태양, 원자력 등 1次 Energy로써 代替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 또 化石燃料의 가운데에서는 天然 가스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크게되어 있다.

日本에서는 自然Energy의 開發은 石油에 代替하는 新Energy의 開發(Sunshine 計劃)로써 Oil-Shock 이후, 新Energy · 產業技術綜合開發機構(NEDO)를 中心으로 積極的으로 進行되어 왔다.

太陽 Energy의 利用形態는 热利用과 光利用

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热利用 小型의 것은 溫水機, Solar system 등으로써 이미 實用化되어 있다. 大規模인 것에서는 太陽熱發電이 있고, 日本에서는 sunshine 計劃에 의해 香川縣 仁尾町에서 1,000KW급의 Pilot Plant 研究가 행해졌다. 光利用으로서는 結晶系 및 아몰화스系의 실리콘 太陽電池가 있다. 電卓 등의 小電力消費機器, 인공위성, 無人灯台 등의 特殊用途 電源으로서 實用化되고 있지만 Cost가 높고, 電力用으로서는 開發段階에 있다. 愛媛縣西條市에서 1,000KW급 Plant에 의한 研究가 NEDO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太陽 Energy는 全體로서는 방대하지만 密度가 적어 大規模로 集合시키는 것이 곤란하고 發電容量에 대한 投資 Energy의 比率이 火力發電에 비해 10⁴~10⁵ 배나 되고, 設備費가 크게 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自然Energy에도 공통으로 되고 있는 課題이다. 表 6에 各種의 發電 Plant建設에 投入되는 Energy量을 나타냈다.

太陽 以外의 自然Energy로는 風力波力, 水力, 地熱 등이 있다. 現在 水力의 Energy 供給比率은 1次 Energy 總需要의 6.8%, 總電力量의 20.3%이다. 立地의 問題가 있고, 先進國에서는 그 大部分은 開發되지 않지만 今後 發展途上國에서의 開發이 期待되어지고 있다.

2.4 核 Energy의 利用

原子力은 核 Energy를 利用하고 있는 것이므로 CO₂를 전혀 放出치 않는다. 그러나 發電 Plant의 安全性 및 放射性 廢棄物의 處分은 世界的으로 커다란 問題로 되고 있다. 大型 電源으로서 우수한 原子力發電을 安全하게 運轉하기 위해서는 定格出力에서의 發電이 양호하고, 既存의 技術로써는 揚水發電 以外에 蓄電池, 후라이 호일 등의 電力貯藏技術의 開發이 必要하다. 原子力發電은 安全性을 포함해서 技術水準이 綜合的으로 높은 先進國의 開發課題로 있다.

表 5. 化石燃料의 確認可採埋藏量(1986年)

單位：石油換算百万七

地 域	石 油		石 炭			天 然 가 스		全埋藏量
	埋藏量	壽命(年)	石炭埋藏量	低品位炭埋設量	壽命(年)	埋藏量	壽命(年)	
北 美	5,100	9.0	90,336	45,067	313	7,421	15, 5	147,924
拉 蒂 아메리카	12,400	37.7	1,804	1,430	241	5,102	71, 6	20,736
西 유 럽	2,400	12.2	23,174	20,206	212	5,751	35, 9	51,531
中 東	54,800	85.5	×	×	×	24,211	100+	79,011
아 프 리 카	7,300	29.3	43,793	75	362	5,288	100+	56,446
아 시 아 및 아 세 아 니 아	2,500	14.3	28,343	14,414	211	5,195	54.4	50,452
공 산 권(전)	10,700	14.0	198,204	65,224	207	41,836	62.6	315,964
中 國	2,400	18.5	104,254	4,534	202	742	64.8	111,930
蘇 聯	8,000	13.1	72,525	45,311	312	40,723	64.0	166,559
기 타 공 산 권	300	11.0	21,425	15,379	104	371	6.4	37,475
世 界(合 計)	95,200	32.5	385,744	146,416	227	94,804	58.7	722,064

資料課 : British Petroleum(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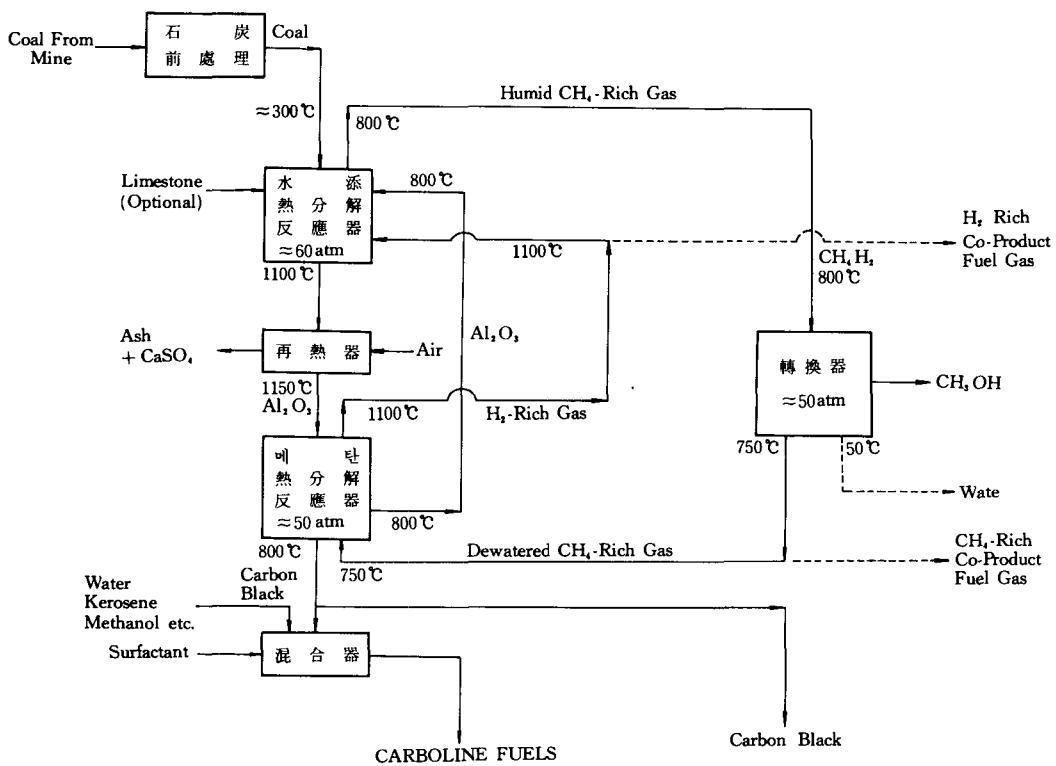


그림 2. 石炭으로부터의 脱炭素에 의한 水素製造 Process

表 6. 發展 Plant 建設에 投入되어지는 Energy量

發電技術名	發電容量 [MW]	投入Energy量 [t(石油換算)]	單位容量當의 Energy 投入量[t/MW]
輕水爐	1,000	97	0.097
石炭火力	1,000	140	0.140
石油火力	1,000	43	0.043
中小水力	10	5,462	546
地熱	10	3,983	398
波力	海上	1	1,179
	固定	0.1	180
潮流	3	4,177	1,390
海底溫度差	2.5	8,853	3,540
風力	0.1	125	1,255
太陽光	1	5,221	5,220
太陽熱	太陽採光	5	18,060
	曲面集光	5	28,872
宇宙衛星	5×10^6	6.5×10^7	13

表 7. 部門別 二酸化炭素排出 Share

總排出量 251Mi-C	方法 1	方法 2	方法 3
Energy 轉換部門計	35.5	25.5	0.0
電氣系系者 (送配電로스相當分)	25.8 (0.7)	17.2 (0.7)	—
自家發電	4.0	2.5	—
熱供給系系者	0.1	0.1	—
都市ガス	0.5	0.6	—
코크스製造業	1.4	1.4	—
石炭·亞鉛鑄業	0.1	0.1	—
天然ガス鑄業	0.1	0.1	—
石油製造	3.5	3.6	—
最終 Energy 消費計	6.45	74.5	100.0
產系部門計	31.6	36.8	49.8
農林水產業	3.0	3.1	3.4
鑄業	0.1	0.2	0.2
建設業	1.5	1.5	1.7
製造系計	26.9	32.0	44.5
食料品	0.9	1.2	1.8
섬유	1.0	1.2	1.6
紙· 페프	1.4	1.8	2.9
化學工業	2.7	3.5	5.5
窯業土石	3.3	3.6	4.3
鐵鋼	12.6	13.7	17.3

非鐵金屬	0.5	0.7	1.3
金屬機械	0.9	1.8	3.5
其他製造業	3.7	4.5	6.3
民生部門桂	13.1	17.6	28.2
家庭用	7.4	9.9	15.7
系務用	5.7	7.7	12.5
運輸部門計	19.8	20.1	22.0
自動車	17.3	17.3	18.5
其他	2.5	2.8	3.5

方法 1: 轉換部門을 獨立의 排出源으로 봄;

方法 2: 有效電力분을 最終消費者로 轉稼

方法 3: 轉換部門의 排出을 모두 最終消費者에게 配分

2.5 化石燃料로부터의 脫炭素에 의한 水素의 製造

化石燃料로부터 CO_2 가排出되는 것은 化石燃料에 含有된 炭素가 原因인 것이다. 따라서 炭素를 쓰지 않고서 水素만을 취하는 것만으로써 使用한다고 하는 提案이 나오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圖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化石燃料를 水添가스化하고 만들어진 メタン을 熱分解해서 炭素를 카본부래으로 除玄하고, 水素를 製造한다고 하는 것이다. 天然가스로써 第1段階로 있는 メタノン은 省略될 수 있다. 이 Process에 의하면 石炭으로부터는 約 24%의 Energy가 水素로해서 추출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從來 化石燃料의 轉換技術은 經濟的 觀點으로부터 化石燃料에 含有된 炭素를 利用하기 쉬운것에 有益함이 없이 變換한다는 立場으로만 開發하여 왔다.

그러나 이 提案은 炭素는 利用치 않고, 固体의 카본부래으로해서 除去한다고 하는 觀點에서 提案되어지고 있다. 이 觀點에 따르면 重質油로부터도 副生成物로 있는 카본은 固体로서 除去하는 일이 可能하다. 化石燃料로부터 炭素의 除去技術 經濟性 檢討가 必要하지만 CO_2 發生源의 抑制라고 하는 意味로 有效하고今后 檢討되어져야 할 課題로 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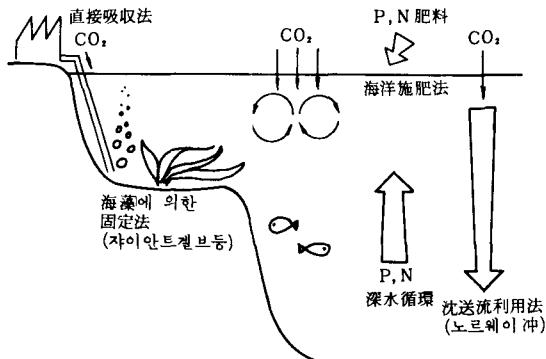


그림 3. 二酸化炭素의 海洋投棄 模式圖

2.6 大量發生源으로부터의 CO₂ 回收·處理

日本에서의 CO₂ 排出量을, 化石燃料를 原料로 해서 電氣 등의 2次 Energy로 轉換시키는 部門으로부터 排出되는 量과 產業, 民間, 運輸 등의 部門에서 最終 利用되어진 結果 排出되는 量으로 나눈 것이 表 7에 있다.

Energy의 轉換으로 約 35% CO₂가 排出되고 있다. 그 大部分은 火力發電에 의한 電氣로의 轉換이다. CO₂의 回收·處理로서는 自動車 등의 小量 發生源을 對象으로 하기 보다는 發電所 등의 大量 發生源으로부터 回收·處理하는 方法이 技術的으로도 간단하고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火力發電所 등의 CO₂ 大量固定 發生源으로부터 CO₂를 分離 回收하고

深海와 廢油田에 廢棄하는 方法이 提案되고 있다. 이 方法은 製鐵所와 시멘트工場 등의 一般 產業 CO₂ 大量固定 發生源에도 適用 可能하다. 圖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火力發電所 등으로부터 排出되는 CO₂를 아민의 溶劑로써 吸收 分離하고, 이것을 50 數氣壓으로 壓縮하여 液化한다.

이것을 500m 以下의 深海로 보내면, 水壓에 의해 CO₂를 液體의 그대로 가두어 두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方法을 쓰는 경우 試算에 의하면 電力發生 Cost가 60% 以上 싸지는데 技術的인 實現可能性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深海 등에 液化한 CO₂를 廢棄하는 경우에는 效率의으로 廢棄하는 場所에 대해서의 檢討가 必要한 것이다.

海洋表層은 大西洋北部에서 深海에 가라 앉히고, 深海流로 되어 大西洋을 南下하고 인도양을 지나서 太平洋을 北上하고, 그 사이에 一定한 上昇流로 되어 表 層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表 層流는 深海流와는 逆으로 移動하고 北部 大西洋에 到達한다고 되어 있다. 이 1循環에 約 1,600年이 걸린다. 이 모델에 따르면 CO₂를 投棄하기 위해서는 太平洋보다는 大西洋 海洋의 炭素循環機構를 밝히는 일이 必要하다. 또 海洋에 投棄되어진 CO₂의 海洋生物의 生態에의 영향평가가 必要하다는 것은 言及할必要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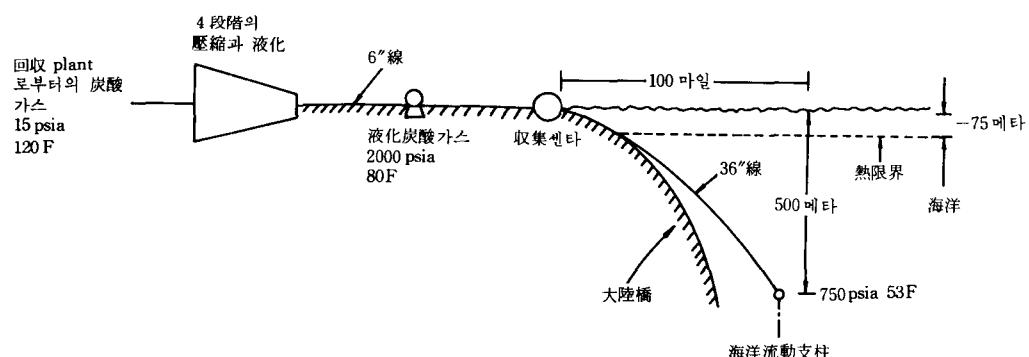


그림 4. 海洋利用의 CO₂ 固定法

2.7 植林 · 砂漠의 錄化

陸上의 植物體로서 著績되어 있는 炭素量은 約 8,300 億噸이라고 생각하며 그 절반 이상은 热帶林에 있다. 热帶林의 總面積은 24.5 億 헥타이지만 近年 0.1~0.2 億 헥타/年的速度로 써消失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主로 火田式 移動農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人工林의 增加는 0.01 億 헥타 程度이고 消失로는 오히려 따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앞으로도 現在의 植林規模를 넘는다는 것은 困難하다고 본다. 따라서 植林은 現狀의 伐採에 의한 負의 效果를 抑制하는 것, 大氣中의 CO₂를 減少시키는 效果를 내기에는 도달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全世界에서 每年 600 万 헥타가 砂漠화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砂漠화의 防止에는 保水劑의 撒布 등 other 人工降雨技術 등이 檢討되고 있다. 이들은 CO₂對策이라기 보다는 耕地의 確保라고 하는 側面이 많다.

2.8 海洋을 利用한 CO₂의 固定

지금까지 放出되어진 CO₂의 약 절반은 海料로 吸收되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現在 海洋에의 CO₂吸收固定速度를 促進시키는 것에 따라 大氣中 CO₂濃度의 增加를 抑制하는 것될 수가 있다.

海洋을 利用한 CO₂의 固定方法 概念圖를 圖 4에 나타냈다. 海洋施肥法, 人工湧昇流法, 珊瑚의 育成, 直接吸收法 등의 固定法이 提案되고 있다.

海洋施肥法은 植物프랭크톤의 數를 增加시키는 것으로써 海洋의吸收固定速度를 增大시킨다는 方法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植物프랭크톤의 成長制限因子로 되어 있는 無機鹽을 海洋에다 施肥치 않으면 안된다.

人工湧昇流法도 海洋施肥法과 마찬가지로 植物프랭크톤에 의해 固定시키는 것이나施肥의 대신에 榮養鹽이 풍부한 深海水를 表層으로 나르는 것과 같다. 深海水를 表層으로 輸送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海洋溫度差 發電으로서의 利用이 考察되었다. 이 方法은 同時に 深

海水에 의한 海洋 表層의 冷却 effect도 期待할 수가 있다.

珊瑚의 炭素固定量 試算은 어렵지만 現在 1~10kg / (m² · 年)의範圍로概算되고 있다. 만약 그 固定量을 10kg. (m² · 年)으로 한 경우, 그레트빠리아리호의 10倍 정도의 面積($2.3 \times 10^{12} \cdot m^2$)으로써 珊瑚를 育成하는 것에 따라 人類가 排出하는 전체의 CO₂를 固定하는게 될 수가 있다. 珊瑚에 의한 CO₂의 固定으로써 特徵的인 것은 이것은 沿海域에서만이 實行 可能한 것이다. 沿海域에서는 外洋에 비해서 植物프랭크톤의 活動이 活發하게 있음이 알려지고, 이것은 陸上으로부터의 廢棄物에서 榮養鹽의 補給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海洋施肥法의 方法은 陸上에서 肥料를 生產하여 外洋으로 撒布한 것인지만 沿海域에서는 河川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沿海域과 外洋의 表層水 交換에 관해서도 考察해 볼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以上的 提案은 海洋生物에 의한 CO₂의 固定으로 期待하는 點에서 共通되어 있다. 海洋生物에 의한 炭酸칼륨의 生產은 海水의 pH를 低下시켜 그것에 의해 海水中의 全碳酸 · 容存量이 減少되는 것으로써 實質적으로는 CO₂의 海洋에서 大氣로의 放出이 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海洋表層의 大部分을 點하는 外洋에서의 植物프랭크톤에 의한 CO₂의 固定은 炭酸 칼륨으로해서 하기보다는 有機炭素의 形態로서 행하는 것이 많고, 더우기 炭酸칼슘도 最終의으로는 深海에서 溶解한다고 생각되므로 植物프랭크톤에 의한 固定速度를 增大시켜줌으로서 海洋 全體로서는 容存全碳酸의 增大하는 것을 期待할 수가 있다. 이들의 議論을 整理하기 위해서는 海洋에 있어서 炭素循環을 海洋化學 및 海洋生態學의 知識을 考慮해서 定量的으로 考察하는 일이 必要하다.

直接吸收法은 大量發生源에서는 CO₂를 回收하고 海洋에 吸收시키는 것이다. 이것에 關해서는 「大量發生源에서 CO₂의 回收 · 處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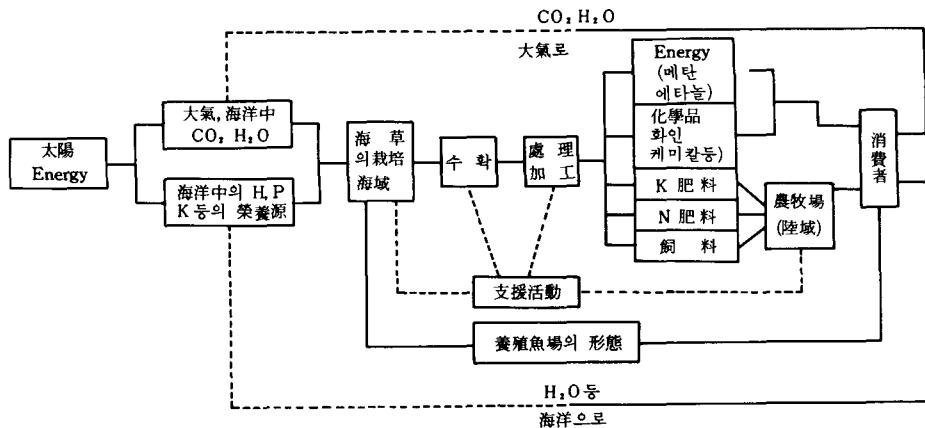


그림 5. 海藻의 規模栽培를 基礎로 한 農工複合体 System

의 項에서 記述했다.

2.9 Biomass의 利用

太陽 Energy의 또 하나의 利用形態는 植物을 裁培하는 것이다. 現在에도 브라질에서는 全 Energy 消費量의 3%에 상당하는 에타놀을 사탕수수로 부터 生產하고 있다.

그러나 政策的 要素가 크고, Energy 收支上 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評價도 있다. 또 一般的으로 植物은 成長이 느리고, 우리가 使用하는 Energy의 一部를 分担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植物 中에서는 海草類가 成長이 빠르기 때문에, 海洋에서의 大規模栽培를 기본으로 한 海洋型 農工複合 System이 提案되고 있다. 圖에 그 System의 概念圖를 나타냈다. 海洋에 廣大한 面積의 栽培地를 確保하는 곤란함은 있지만 技術的으로는 可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太陽 等의 1次 Energy 를 想定하는 對策

3.1 水素의 利用 System

水素는 燃燒에 의해 CO_2 를 發生치 않는 깨끗한 燃料로 있기 때문에 水素를 Energy로 利用하는 System이 提案되고 있다. 水素의 製造

는 물의 電解이외 热化學法이 提案되며 研究되고 있다.

民間用의 Energy로서 水素를 利用하는 것은 輸送 貯藏의 點에서 現實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高爐法으로 直接還元製鐵로 轉換하는 등 產業에서 技術開發에 의한 化石燃料의 使用을 삭감하는 效果가 期待된다.

3.2 CO₂의還元固定化·再利用

例를 들면 CO_2 의 接觸水素反應에 의해 여러 가지의 化學品을 合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概略을 圖 6으로 나타냈다.

一酸化炭素의 接觸水素化로서는 메타놀 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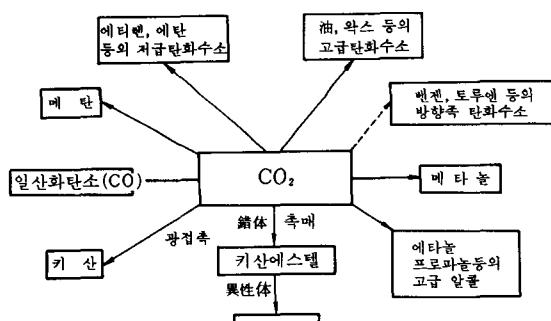


그림 6 CO 의 觸媒水素化反應 概略圖

成等 實用化되어 있는 것이 있고, CO_2 接觸水素化에 관해서도 高性能의 觸媒가 發見되어지면 實現이 可能性은 높은 것이라고 思料된다.

메탄, 에탄, 에칠판 등의 低級炭化水素로부터 오일, 왁스류, 기산에스텔 등의 가루본산 誘導體 더우기 메타놀, 에탄올 등의 알콜合成 報告도 있다.

圖 7에 CO_2 로부터의 메타놀合成의 反應經路를 나타냈다. CO_2 의 化學法인 再資源化法으로는 其他 電氣化學的 方法, 光化學的 方法, 人工光合成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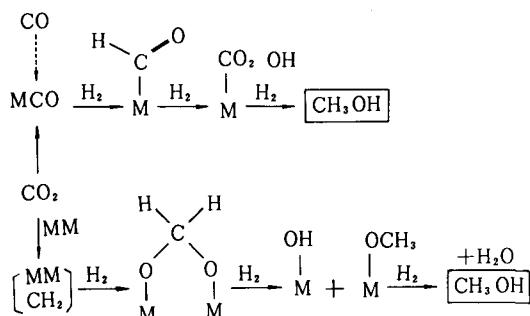


그림 7. CO_2 로부터의 메타놀 合成經路

表 8에 電氣化學的 CO_2 還元反應 例를, 圖8에 光化學的 CO_2 還元反應에 Scheme (構造)例를 나타냈다. 이들중에서 大量發生源으로부터의 CO_2 를 回收하여 接觸水素化에 의해 合成한 메타놀을 燃料로해서 再利用하는 System이 炭素의 循環利用 System으로서 提案되고 있다.

이것은 太陽 등의 1次 Energy의 CO_2 를 使用한 液體燃料化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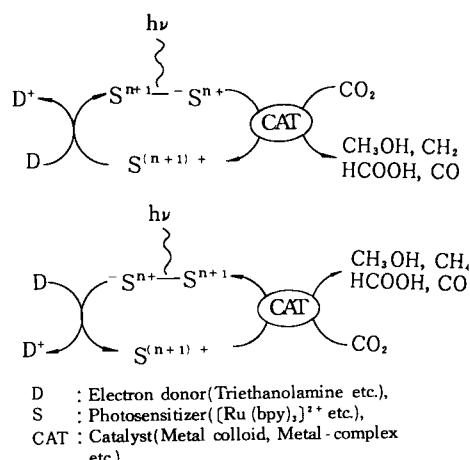


그림 8. 光化學的 CO_2 還元反應의 一般的의 Scheme

表 8. 電氣化學的 CO_2 還元反應例

電極材料	電子傳達體	溶 媒	還元電位(vs, SCE)	生成物
水銀	$[\text{Ni}(\text{cvelam})]^{2+}$	H_2O	-0.9~-1.05	CO
水銀	테트라자 大環狀化合物 / Co, Ni 錯體	$\text{CH}_3\text{CN}/\text{H}_2\text{O}$	-1.3~-1.6	CO
Glassy Carbon	Ag(OEP), Pd(OEP), Pb(TPP)	CH_2Cl_2	-1.50~-1.65	$(\text{COOH})_2$, H_2
水銀	Co(TCPP), (TPPS_3)	Clark – Lubs buffer	-1.1~-1.5	HCOOH
水銀	$[\text{Fe}_4\text{S}_4(\text{SPH})_4]^{2-}$	DMF	-2.0	HCOOH

OEP : octaethylporphine, TPP : tetraphenylporphine,

TCPP : mesotetraacarboxylporphine, TPPS_3 : tetraphenylporphinesulfonate

3.3 石炭·石油로부터 低炭素燃料의 製造

太陽 등의 1次 Energy의 液體燃料化에는 炭素가 必要하다. CO₂에 의한 메타놀의 合成도 그 하나이지만 排出하는 CO₂는 接觸水素化에 의해 메타놀로 變換시킨다.

一般的으로 石炭·石油의 利用에 대해서는 石炭·石油를 轉換하는 것으로써 低炭素燃料를 製造하고, CO₂를 回收하기 어려운 小量使用者로 供給하는 System을 選擇하는 일이 肝要하다.

이것이 「CO₂ 發生源의 集中化」의 考察法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轉換에 必要한 Energy 效率의 低下를 補充할 뿐이지만 石炭·石油의 使用量은 增加한다.

또 供給되는 Energy는 使用하기 쉬운것으로 發展途上國에 대해서는 爆發的인 Energy 需要의 增大로 될 可能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같이 石炭·石油의 利用은 現在로서는 Energy 轉換이 많고, 금후에도 世界的으로 Energy 總需要의 增大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部門에서의 Energy 利用效率을 行하고, CO₂ 輩出을 抑制하는 것과 함께 Energy의 多樣性을 確保하는 일이 重要的 것이다.

특히 發展途上國에 있어서는 價格의 點에서入手가 곤란하게 되는 石油보다는 石炭의 轉換技術의 導入이 바람직 하다.

4. 社會變動을 前提로 하는 對策

4.1 省 Energy 都市의 對策

單一의 住宅·事務所의 省 Energy에 면추지 않고, 都市全體를 省 Energy化 한다고 하는 計劃인 것이다. 「Marine-solar Village」로서 캘리포니아의 산베루트地帶에 計劃되었다. 住宅은 原則으로 集合住宅으로 하고, 職進接近의 System에 의해 이 都市에 있어서 民生效用 Energy의 45%를 省 Energy로 될 수가 있다고 본다. 省 Energy 都市의 建設은 全體로서 住宅과 職場의 Balance, Local Energy로

消費의 Balance 등이 重要하고, 都市 成長등의 動的變化에 對應하여 가는 持續性을 維持하는 일이 肝要하다.

4.2 技術·產業의 移轉

CO₂ 問題의 政策的 對策으로 化石燃料의 生產·消費에 관해서 課徵金制度가 想定되고 있다. 化石燃料에 의한 CO₂의 處理가 具體的 課題로 된 경우에는 水力, 太陽 등의 1次 Energy가 開發되기 쉬운 地域에, Energy 多消費型 產業은 移轉할 可能性은 否定할 수는 없다.

5. 氣候變化 對應型 對策

以上의 對策은 CO₂의 增加에 의해豫想되는 氣候變化를 抑制하기 위한 對策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한편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對策도 提案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提案의 나열에 그치겠다.

- 5-1. 高堤防建設에 따른 都市의 책위
- 5-2. 農業植物等의 品種改良(含遺傳子工學)
- 5-3. 農業의 世界的 分担

6. CO₂ 問題의 對策과 今後의 課題

地球溫暖化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人類는 일찍이 經驗한 일이 없는 막대한 量의 炭素를 地球規模로써 取扱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在의 化學工學과 Energy 工學을 한층 發展시켜서 地球規模로써의 Macro的인 物質循環, Macro的인 Energy 變換, 더구나 Macro的인 生態 System을 取扱하고 地球規模工學이라고 하여야할 새로운 學問의 構築과 그 技術의 體系化를 人類는 주저없이 곧바로 開始해야 한다고 思料된다.

만약 이와같은 學問·技術體系가 確立된다면, 단지 地球溫暖化 問題만이 아니고, 人類가 반드시 直面하는 人口問題, 食量問題, 石油 Energy 枯竭後의 새로운 Energy 問題등에 대해서도 解決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以下로 今後 檢討하여야 할 課題를 提案하는 바이다.

- (1) CO₂ 問題의 Energy 問題로서의 位置
 - 省 Energy, 1次 Energy 變換技術 등의 評價
 - 需要를 滿足시키기 위한 合理的인 1次 Energy 供給體系의 提案
- (2) CO₂ 問題의 經濟問題로서의 位置
 - 社會變動을 前提로하는 對策의 評價
 - 化石燃料 課徵金이 미치는 產業構造에의 影響
 - 產業의 世界的 分業化에 의한 Energy 供給의 變化
- (3) CO₂ 循環機構의 모델화
 - 陸上 生態系에 의한 炭素의 循環
 - 海洋에 있어서 炭素의 循環
- (4) Idea 와 段階에 있는 對策技術의 定量的評價
 - 海洋을 利用한 CO₂의 固定等.

本稿는 日本化學工學會의 「CO₂와 地球環境問題研究會」에서 檢討되어진 對策技術에 관해서 整理된 報告書를 变역소개 하는 것임을 밝혀두며 對策技術의 定量的評價는 今後의 課題이고, 現在도 檢討中에 있다. 檢討結果에 대해서는 再次 機會를 얻어 報告하고 싶다.

—引用文獻—

- 1) 進藤勇治, 小宮山宏 : MOL, 3月號, 47 (1990)
- 2) 横山長之, 林正康, 鈴木基雄 : 產業公害, 25, (12), 7, (1989)
- 3) 「ニコーエナジー」,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編著, p.112(1989)
- 4) 中林恭之, 石炭利用技術研究發表會講演集 (第11回), p.104, 石炭技術研究所, (1989)
- 5) 萩須吉洋, 「地球温暖化對策技術入門」, 横山長之編, オーム社より近刊
- 6) 「ニコーエナジー」,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編著, p.164(1989)
- 7) 鹽田進, 石炭利用技術研究發表會講演集 (第11回), p.30, 石炭技術研究所, (1989)

- 8) 植田清陸, 第9回工技院筑波總合 シンポジコーム予稿集, p.123(1989)
- 9) 島本進, 化學工學, 47, (8), 503(1983)
- 10) 中尾眞一, 化學工學, 54, (1), 44(1990)
- 11) 大阪ガスミックス, 18, (5), 372(1983)
- 12) 「ニコーエナジー」,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編著, p178(1989)
- 13) 「ニコーエナジー」, 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編著, p182(1989)
- 14) 「省エネルギー住宅の試み」, 硝子纖維協會 (1977)
- 15) エネルギー・資源, 1989, (9), (1989)
- 16) 伊牟田和敏, 「地球環境對策技術入門」, 横山長之編集, オーム社より近刊
- 17) POLICY OPTIONS FOR STABILIZING GLOBAL CKIMATE, DRAFT REPORT TO CONGRESS, Volume II, Chapter 5, US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Protection, Feb., 1989
- 18) 電源開發(株), サンシャイン計画仁尾太陽熱發電 プラント, 昭和56年3月
- 19) 田中忠良, サンシャインジャーナル, 10-2, P.17 (1989)
- 20) 内山洋司, 化學工學, 54, (1), 30(1990)
- 21) 内山洋司, 「エネルギー情勢と電力技術開発の返還」, 電力中央研究報告Y87009, 1988年11月
- 22) Meyer Steinberg, 198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L SCIENCE (IEA主催) 予稿集, p.1059(1989)
- 23) 森口祐一, 西岡修三: 環境研究, 第77號, p.156, (財)環境調査センター(1990)
- 24) M. Steinberg, H. C. Cheng and P. Horn, A Systems Study for Removal, Recovery and Disposal of Carbon Dioxide from Fossil Fuels Power Plants in the U. S.,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84)
- 25) 茅陽一ら, 「温室效果 ガスと地球温暖化」, p.68, アクネ承風社 (1989)
- 26) 小島紀徳, 「地球温暖化問題ハンドブック」, 小宮山宏監修, アイピー社より近刊
- 27) 木下幹夫, MACRO REVIEW, 2, (1), 35 (1989)
- 28) 稲葉敦, 化學工學, 54, 18 (1990)
- 29) 進藤勇治, 小宮山宏, 化學工學, 54, 36 (1990)
- 30) 小宮山宏指導, 東京大學化學工學科平成元年度プロセフ設計レポート(1989)